

# 종교간 갈등해소에는 대화·대화·대화 뿐

## 폴 니터 교수 초청 특별 토론회

2011년 새해가 밝아오면서 종교 간에도 새로운 평화의 빛이 스며들었다. 불교와 기독교의 대표 성직자 신학자들이 모여 12월 5일 서울 목동 국제선센터 금차선원에서 '가슴을 열어 빛을 보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종교 분야의 세계적 석학 폴 니터(뉴욕 유니언신학대 교수)가 불교수행자인 부인 캐서린 코넬 여사와 함께 한국을 방한해 이뤄졌다.

토론회에는 불교신문사 사장 수불 스님, 상도선원장 미산 스님, 국제선센터 금차선원장 효담 스님, 김희성 서강대 명예교수, 이정배 감리교신학대 교수, 김경재 삭개오작은교회 목사, 정현경 뉴욕 유니언신학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400여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3시간 가량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불교와 기독교 대표 성직자와 신학자들이 모여 종교간의 평화에 대해 열린 대화의 장을 펼쳤다. 이날 폴 니터 교수는 "종교간의 우월성을 강조하면 폭력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 #종교갈등 99%가 개신교 책임

폴 니터 교수는 이번 한국 방문 일정을 통해 수좌스님들과 불자들의 뜨거운 수평 열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폴 니터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일어나게 된 '사찰 땅 밟기' 등의 불교 편파 논란에 대해 유감스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니터 교수는 "오히려 이러한 사건을 계기로 종교 간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돼 기쁘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폴 니터 교수가 전체 스님과의 만남에 기초해 4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 첫 번째는 '왜 일부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편파하는 행동들을 한 것인가?'에 대한 이유와 대안 > 두 번째는 부처님과 예수님이 이방이 될 것인가 친구가 될 것인가 > 세 번째는 고통에 가득차 있는 세계에 불교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협력해 고통을 줄여 나갈 것인가 > 네 번째는 세계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간화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기독교인들이 서울 봉은사, 대구 동화사 등 '땅 밟기' 사건을 두고 폴 니터 교수는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종교라 믿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폴 니터 교수는 "불교이던 기독교이던 간에 자신의 종교 우월성을 강조하면 폭력과 연결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기독교 역사에는 많은 폭력적인 사건들이 등장한다. 이는 자신의

종교가 우월하고 참된 종교라 믿는 것에서 출발된 사건들이었다.

이에 대해 김경재 목사는 "한국 종교사에서 불미스러운 종교 갈등 사건의 99%가 기독교 책임, 불교가 1%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3가지 이유를 꼽았다.

첫째는 성경의 잘못된 해석이다. 김 목사는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바탕이나 내용의 이해 없이 글자 그대로 한글로 번역돼, 성경에는 이웃종교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가르치는 구절들이 많다"며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성경을 존중하고, 문자적으로만 불교를 적대시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둘째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반영과 경쟁의 가치관에 매몰된 종교지도자들에게 대한 지적이다.

김 목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한경쟁 보다는 강하고 위대한 것이 승리한다는 가치관을 가진 일부 교회의 지도자들이 자신의 교회를 더 키우기 위해 다른 종교를 편파하고 있다"며 "종교적 권력, 명예욕 등을 앞세워 큰 종교왕국을 이뤄야겠다는 탐욕이 강할수록 불교를 편파하고 무시하는 사례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셋째는 불교의 역사이다. 개신교는 해방의 종교로, 자유의 종교로 전파됐다.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지식층이 아니었다. 반면 한국에서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불교는 과거 호국불교의 미명아래 귀족과 재벌을

중심으로 불사가 이뤄져 왔다.

김 목사는 "불교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정법을 알려주지 않았고, 불교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하지 않았다"며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불교를 편파하는 것은 불교가 뿌려놓은 '업(業)'의 결과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배 교수는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 내릴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두 가지 이유로, 기독교인이 정치적이면 안 된다는 사실과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사는 안 된다는 지침이다.

이 교수는 기독교의 '사찰 땅 밟기' 등 국내에 들어오면서, 기독교는 한국 문화를 타자화·미신화 시켰다"며 "한복 입은 사람들이 타자화 됐고, 양복 입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됐다"며 "이런 사회에서 자연스레 불교의 정체성이 흐려졌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독교의 '사찰 땅 밟기' 등에 관한 문제들이 오늘날 불거지는 이유로 가장 큰 문제는 '기독교인들의 정권 장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위치를 과시하고, 개인들의 오만과 무례한 행동들이 일어났다"며 "기독교인들이 주축이 된 정권의 무례함이 이번 대화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 비판했다.

미산 스님은 "김경재 목사가 1%가 불교 문제를 지적한데 대해, 100%의 불교 잘못, 0%의 기독교 잘못이라 말하고 싶다"며 "왜 우리가 100%의 잘못인가에 대해 역사, 사상, 사회, 문화적요소를 면밀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부처와 예수 다르지 않아

수불 스님은 "진정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란 말의 구조는 모양이 있지만, 부처님은 돌이 아닌 공(空)이라 말한다"며 "이런 입장의 차이를 대화를 통해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그동안은 서로 대화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인류의 희망과 행복을 가져다 줘야 할 종교인으로서, 종교인들이 먼저 나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김희성 교수는 "불상과 탱화 등은 사실 상(相)이다. 불교는 무상(無相)을 알아야 한다"며 "부처와 예수는 천하의 자유인이었다. 세상 가치와 권위, 종교로부터 자유로웠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들의 자유는 곧 죽음이었으며, 죽음은 참 생명"이라며 "우리는 두 종교 사이에서 '사죽생(死即生)'을 발견할 수 있다. 자유를 바탕으로 사랑과 자비를 이룬 부처와 예수는 불교의 공(空)과 기독교의 사랑을 말한다. 이것은 돌이 아니며, 공처럼 모두를 포용하고 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산 스님은 "하버드대에서 공부할 당시 어느 교회 창문에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있다'라는 구절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불교와 기독교는 너무 쉽게 통합할 수 있다. <도마복음>에는 종교간 소통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많이 나와있다"고 말했다.

### #개인의 평화가 사회 평화 이끈다

폴 니터 교수는 "불자와 기독교인 모두가 개인과 사회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니터 교수는 "깨달은 개인이 우선 변해야 한다. 틱낫한 스님이 말했듯, 세계를 평화롭게 만들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평화로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산 스님은 "불교의 핵심 교리는 사회 구원, 자비실천, 지혜의 완성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이 깨달음만 우선"이라며 "깨달은 만큼 자비심이 나와야 온전한 깨달음"이라고 강조했다.

정현경 교수는 "평화는 소통과 대화에서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911테러 사건이 타자화가 악마화가 된 가장 대표적인 예라는 것이다. 정 교수는 "테러나 왕따와 같은 행위는 다른 사람을 악마화 시키는 행위"라며 "그전에 상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갈등의 해답은 간화선에 있다

수불 스님은 "지구촌을 더 나아가 평화를 말할 필요조차 없는 세계가 있다고 본다"며 "이는 곧 깨달음 자체이며, 이런 내면의 문제와 자비는 간화선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폴 니터 교수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에게 'Who was I?(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받았다. 이 화두를 통해 깨닫기에는 내 나이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간화선 경험을 짧게 말하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뭔가가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간화선에는 중요한 뭔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 불자들을 만남으로써,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고 답했다.

니터 교수는 "명상하기 전에 이 기도를 꼭 하고 싶다"며 "거룩한 부처님, 거룩한 가르침,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 거룩한 복음, 거룩한 교회에 귀의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정배 교수는 "한국은 OECD국가 중 욕망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며 "이는 불교, 기독교 모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다져나가야 할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현경 교수는 "정의가 없으면 평화도 없는 법이다. 평화는 진짜 만들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산 스님은 "앞으로도 종교 간에 공통 주제를 놓고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구체적이고, 역동적이고, 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리=이은정·천진영 기자 사진=이은진 기자

##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재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1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 옥천범음대학 신입, 편입(학점은행제)생 모집요강

### I. 주의사항

1. 불교전문교육기관인 동시에 교육인적자원부 학점은행제 실시교육기관이다.
2. 제출 및 전형료는 일체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입학할 취소한다.
3. 부정 및 불법행위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자는 입학 이후라도 합격 및 입학할 취소한다.
4. 합격통지 후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5. 입학원서를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우편으로 입학원서 접수시 전형료를 소정의 계좌로 입금해야 접수가 완료 된다.
6. 기타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 전형 절차에 따른다.

### II. 제출서류

학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신편입 공통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 본교 교차처 및 우편접수
	2.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1부	2. 우편접수시 인터넷에서 교부한 원서에 사진 부착후 여타의 서류와 함께 본교 교차처로 등기발송
	3. 주민등록본 1부	
	4.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서본 1부 (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5. 2학년 편입 경우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1부(단 영산재보존회에서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에 한함)	3. 접수처: (우)120-150 서울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학 행정실
	6. 반명함판 사진 4부	
	7.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 III. 응시자격 및 제출서류

1. 응시자격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불교학, 음악, 무용)출신자

### 2. 신편입 전체공통

모집과목	교수내용	요일	시간	교수진	모집인원
상주권공	상주권공과정	월	오후 1시~7시	조인각	30
각 배	각배과정	목	오후 1시~7시	이기봉	30
영산	영산과정	금	오후 1시~7시	마일운	30
불교작법(무용)	나비춤/바라	수	오후 1시~7시	김현수	30
불교의식(이론 I)	범불교의식	화	오후 1시~4시	심만춘	30
불교교양(이론 II)	불교교양	화	오후 4시~7시	한환안	30
불교의식실기(실기)	시련 대형 관육	월	오후 1시~7시	이기봉	30

- \* 단 불교의식 실기과정은 상주권공 수료자 이상
- ①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 ②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③ 주민등록본 1부
  - ④ 반명함판 사진 4부
  - ⑤ 승적 증명서 및 수계증서본 1부(일반인 경우 필요없음)
  - ⑥ 원서대 및 전형료 50,000원

### 3. 학점은행제

학점 은행제 모집 (2011학년도)							
2010학년도 1학기 과정				2010학년도 2학기 과정			
개설과목	교수	요일	인원	과목	교수	요일	인원
범패의전승계보	심만춘	화	30	범패실습 II	조인각	월	30
사물실습	이기봉	월	30	영산재의원리와방법	심만춘	화	30
영산재행위전승	한환안	화	30	불교학개론	한환안	화	30
				화청과회심곡별곡	이기봉	월	30

- 지원자격 : ① 고등학교졸이상자. (전문대 과정 4년제 대학과정 중퇴자)  
② 타기관 학점은행제 수강자. ③ 타 전공학위를 원하는 자.
- 제출서류 : ① 신편입공통서류 참조

### 4. 편입과정

- 지원자격 : 동방불교대학 법매학과 졸업자
- 제출서류 : ① 상주권공 수료증 사본 (영산재 보존회 인정기관에서 발부된 수료증 또는 옥천범음대학 상주권공 수료자에 한함)  
② 신편입공통서류 참조

### IV. 원서전형일정

- ① 원서교부 : 2011년 1월 3일(월) ~ 2월 11일(금)
- ② 등록기간 : 2011년 2월 21일(월) ~ 2월 25일(금)
- ③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2011년 3월 7일 오후 1시
- ④ 추가모집 : 출석일수 1/3 미만시
- ⑤ 원서대 및 전형료 전체공통 : 50,000원
- ⑥ 납부계좌번호 : 국민은행 012501-04-204671 / 예금주 이수길
- ⑦ 유의사항 : 납부기간 내에 미납시 불합격 처리 됨. 실명입금원칙으로 하며, 타인 명 입금시 반드시 전화요망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 V. 합격자 발표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VI. 특 전

- ① 재학생중 4년과정을 졸업시 중단에서 실시하는 습의교육 및 수계산림에 참가 할 수 있는 요건을 부여한다.
- ② 출가 승려로서 법계 미 품수시 태고종 승려에 한하여 중대법계 품수 자격부여. 단, 입학시 승려에 한하며 재 학생 출가자는 제외.
- ③ 4년 과정을 수료과정을 이수한 졸업자에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 준회원을 부여한다.
- ④ 성적우수자에게는 장학금 부여 및 국내외 공연시 우선선발을 부여하고 각종장학금 혜택을 부여 한다.

### VII. 입학문의

전화 02)392-3234 / 팩스 02)392-3239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토· 일: 휴무)

## 옥천범음대학 학장 이기봉

120-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 내  
홈페이지 : www.okchunbud.kr